

국가서지 현황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Strategic Direction for Improving the Service Quality of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노 지 현 (Jee-Hyun Rho)**, 이 미 화 (Mihwa Lee)***
이 지 원 (Ji-Won Lee)****, 이 은 주 (Eun-Ju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현황 분석 |
| 2. 국가서지 관련 국제권고의 주요 내용 | 5.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 전략 제안 |
| 3. 국가서지 구축의 당위성 | 6. 결 론 |

초 록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가서지의 지속적 발전과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서비스의 노후화 및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 기록으로써 자국의 지식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1)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적 권고를 검토하고, (2) 현 시점에서 국가서지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한 다음, (3) 국가서지의 품질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전략을 제안하였다. 세부 운영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1) 국가서지의 수록범위, (2) 데이터의 구축 방식, (3) 국가서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례조사와 실무진 면담,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Library Act enacted in 1963, the national bibliography of Korea has been publishing annually since 1965. Unlik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ve been promot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bibliography and service innovation,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is rarely used due to service degradation and structural problems of data. The national bibliography has great significance as a symbol that reflects a country's knowledge culture, as it is a comprehensive records of publications published domestically or related to the countr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data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rategy for improving the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To this end, this study (1) analyzes trends and key contents of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y, (2) examines the meaning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bibliography at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and (3) suggests detailed oper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rvice of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Data was collected and utilized through case studies,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national library staffs, and literature reviews.

키워드: 국가서지, 서지데이터, 국가서지 서비스, 대한민국 국가서지
National Bibliography, Bibliographic Data, Bibliographic Services,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 본 연구는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rho@pusan.ac.kr / ISNI 0000 0004 6484 8385)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eemh@kongju.ac.kr / ISNI 0000 0004 6431 3495) (공동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jiwon@cu.ac.kr / ISNI 0000 0004 7387 3590)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1년 7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8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79-101,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3.079>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출판물에 대한 총체적 기록으로써 자국의 지식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다(이은주, 노지현, 2021, 180). 국가서지를 ‘국가 기억에 대한 증거자료’(Beaudiquez, 1992)나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Bell, 1998)에 비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가도서관이나 국가서지기관에서는 국가서지의 구축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도 IFLA 서지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서지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을 통해 납본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후 국가서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 발간된 출판물을 소급 조사하여 『韓國書誌』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6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를 근거로 매주 『납본주보』를 발행하고 이를 축적하여 이듬해에 『大韓民國出版總目錄』라는 제호로 국가서지를 발행하였다. 2005년에는 국가서지의 명칭을 현재의 『대한민국 국가서지』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국가서지의 기능 수행을 위해 수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전자책(pdf, e-pub)을, 2016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국가서지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서지 검색 로그데이터와 국가서지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가서지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은주, 노지현, 2021). 이는 과거와 달리 국가서지의 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목록이나 고성능의 정보검색 도구가 출현한 정보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나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서비스의 노후화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적 권고를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국가서지의 생산 및 제공을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현황을 분석 준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국가서지의 미래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국가서지의 현황 분석과 실무자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전자책 『대한민국 국가서지』와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및 협력기관 실무진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실무진 면담은 2020년 7월 29-30일에 집단별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참여한 피면담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업무담당자와 관련 서비스 담당자, 그리고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주업체 및 협력기관 관리자 등이었다. 또한 연구팀에서 도출한 국가서지의 구축 및 운영 전략을 검토하고 보완·발견시키고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국가서지와 관련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Clausen(1977)은 국가서지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한 성공 사례로 덴마크 국가서지를 분석하였으며, East

(1999)는 국가서지가 국가도서관의 목록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국가서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Krynicka (2012)는 국가서지에 대한 개방적 접근(open access)의 모범 사례로서 폴란드 국가서지기관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Deliot(2014)는 영국 국가서지(BNB)의 링크드 데이터 개발을 위해 RDF 데이터 모델과 MARC21을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술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해원, 박지영, 이성숙(2017)은 우리나라 국가서지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전자적 형식의 국가서지 발행, 국가서지에서 전자자원의 표현, 국가서지 서비스 범위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이미화, 이지원(2021)은 9개국의 국가서지를 비교분석하여 최신 국가서지 서비스의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이은주, 노지현(2021)은 IFLA 가이드라인(2012)을 참고하여 국가서지의 주요 이용자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선별한 다음 국가서지에 대한 실제적 이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서지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국가서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국가서지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국가서지 관련 국제권고의 주요 내용

국가서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50년에

개최된 UNESCO 회의에서 시작하여 1977년 UNESCO와 IFLA의 공동회의, 1998년, 2010년, 2012년에 연이어 개최된 IFLA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진화되고 확장되어 왔다.

각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50년 UNESCO 회의는 국가서지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로서 국가서지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의 유형(범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후 1977년 UNESCO/IFLA 국제회의에서는 1950년의 회의결과를 발전시켜 “국가서지는 한 나라의 인쇄물(imprint)에 대한 권위 있고 포괄적인 레코드의 축적물로서 정기적으로 인쇄 또는 기계가독 형태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공포하였다. 또한 서지데이터의 국제적 공유와 온라인 형식으로의 변환을 위한 서지데이터 형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1998년 ICNBS(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Bibliographic Services)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계승하여 국가서지에 대한 국가서지기관의 책임과 역할, 납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터넷 자원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자원유형도 전통적인 자원유형과 대등한 조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 자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2010년에 IFLA 국가서지 실무그룹에서는 1950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화해 온 국가서지의 개념 변화를 검토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서지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소에 대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에 수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서지가 모든 유형의 출판물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출판물을 포괄할 필요는 없다”는 사항이 수록되었

다. 대신에, 각국에서 국가서지에 수록할 실용적인 자료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공개하고, 출판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지기술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국가서지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을 활용하되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2년 IFLA 회의에서는 국가서지가 '포괄성'보다는 '대표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웹의 확산과 출판물 양의 급증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자동 데이터의 생성과 웹 하베스팅,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대규모 처리 방안,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였다.

국가서지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진행된 핵심 논점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국가서지에 관한 주요 이슈는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다소 변화해 왔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전자 형식의 국가서지 데이터의 발행과 국가서지에 수록될 디지털 자원의 범위, 자원기술 표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유형의 확장과 이에 따른 출판·유통 방식의 변화, 그리고 적용 가능한 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국가서지에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가서지 관련 국제적 권고의 주요 특징과 변화

	1950년	1977년	1998년	2010년	2012년
수록 범위 및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서지는 단일 리스트가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출판물을 다큐먼트하고 등록하기 위해 일관된 서지체계를 가져야 함 국가서지는 시청각자료와 함께 각국에서 출판되고 판매되는 도서와 팜플릿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중요한 논문은 연속간행물 색인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도서관에서 출판물을 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서지는 "한 나라의 인쇄물(imprint)에 대한 권위 있고 포괄적인 레코드의 축적물로서 정기적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인쇄 형태 혹은 목록카드나 기계가독형 테이프 같은 물리적 형태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공표함 국가서지기관에서는 국가서지에 국가 인쇄물에 대한 레코드 외에 다른 자원 유형을 포함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특별히 국가와 관련되거나, 국가 컬렉션의 일부, 즉 국가의 문화, 역사, 지리 및 언어와 관련된 모든 출판물이 국가서지에 수록될 수 있음 최소한 공식 출판물을 포함하여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장간호와 표제 변경된 연속간행물에 대한 레코드, 그리고 다른 유형의 자원이 수록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물, 시청각, 전자문헌과 같이 수록매체의 형태와 상관없이 한 국가 내에서 출판된 모든 문헌을 "최신 국가 생산물"이라고 지칭할 인터넷 문헌을 포함해 모든 새로운 문헌 유형은 전통적인 문헌 유형과 대등한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함 국가서지는 최신의 국가 생산물을 포함해야 하고 실질적인 소급 범위도 제공해야 함 필요시, 국가서지기관에서 국가서지의 선정기준을 정의하여 공개하여야 함 국가서지는 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언어와 문자로 된 출판물에 대한 레코드를 포함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레코드는 출판물의 원본에 나타난 언어와 문자를 수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서지의 목적은 국가 출판물에 대한 확정적 레코드를 제공하는 것임 국가서지는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목록 사서가 만든 서지레코드의 집합물임 국가서지에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모든 출판물일 필요는 없음. 포괄성이 절대적인 목적이 될 필요는 없음. 실용적인 선정기준이 정의되고 출판되어야 함 웹 출판, 새로운 포맷과 매체가 등장하면서 국가 출판물의 범위가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인 선정 정책에 대한 요구가 등장함 출판된 디지털 자료를 새롭게 정의함 국가서지는 국가 출판물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대표할 수 있음 선정을 위한 보편적 해결책이 부재하고, 인쇄,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범위 적용 기술(descriptions)의 넓이와 깊이 자료의 정의와 취급에서 국가 간 다양성이 존재함

	1950년	1977년	1998년	2010년	2012년
생산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법과 연계하여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서지기관에서 국가서지를 생산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서관의 요건 및 국가서지 자원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국가서지 레코드를 생산해야 함 · 국가서지의 전자출판 발행 옵션과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에 국가서지데이터의 수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의 생산 및 관리에 있어 국가서지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 · 국가의 문화와 지적 유산 및 언어적 다양성이 보존되고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게 접근가능하도록 납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납본 규정이 없는 국가를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서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최신의 납본 규정이 요구됨. 국가는 기존 납본 규정을 검토하고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기존 규정을 개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찾아야 함 · 국가서지는 물리적 형식 주제, 품질과 관계없이 출판된 문헌의 완전한 등록을 목적으로 함 · 전통적인 목록 관례가 웹과 전자출판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음. 즉 디지털 매체의 다양한 포맷의 증대는 정보조직과 표현 및 접근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함. 전자서원은 자원 기술과 접근에 새로운 도전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해야 함 · 양질의 기술(description)과 접근점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 하베스팅과 서지 향상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CIP와 같은 향상된 데이터는 가치있음 · 메타데이터 변환 및 크로스워크 개발 필요함
발행 형식 및 포맷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의 출판에 관한 지침 수록 · 국가 내 문헌을 판매하는 회사 및 기관 디렉토리를 제공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의 출판에 관련된 지침 수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는 전자 혹은 인쇄 형태로 생산될 수 있고, 최종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 · 국가서지기관은 잠재적 이용을 포함하여 국가서지의 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가서지에서 오픈 라이선스 모델, 오픈 액세스 루트, 오픈 표준과 같이 개방(open)이 중요한 규범이 됨 · 데이터의 재사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라이선싱이 필요함 · 다양한 형식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함 · 글로벌 시장에서의 운영을 고려해야 함
관련 표준 및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가의 국가서지는 UBC의 핵심 요소로, 서지데이터 교환과 재사용에 중요함 · 국제적인 목록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서지포맷과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국가서지는 개인과 단체 명의 전자제어를 포함하여 국가 인쇄물의 기본적이고 권위있는 등록을 보장해야 함 · 국가서지를 위해 필요한 목록 수준을 정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기관은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지만, 표준의 조정과 실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국가서지기관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서지기관은 자원의 특징을 바탕으로 출판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목록 수준을 결정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기술을 이용해야 함 · 규칙, 표준,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관리, 발전시키는 책임은 국가서지기관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의 획득과 적용 · 자동 데이터 생성과 품질 향상 · 전자출판물의 대규모 처리 -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통해 온톨로지와 통제어휘의 사용 증대 · 태그에서 트리플로 시맨틱 접근 · 영구적인 링크와 식별자의 개발과 유지 · 자원과 자원 간의 연계 기능 강화

3. 국가서지 구축의 당위성

국가서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종합하면,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출판물

에 대한 총체적 기록으로서 자료의 주제별, 매체별, 시기별 특성과 저자, 발행사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최상위' 수준의 서지자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 국가서지는

‘대표성’과 ‘권위’를 지녀야 하며, 다양한 목적에서 서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국가 지식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탐색도구가 존재하는 있는 상황에서 국가서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가서지의 지속적 생산을 정당화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사회문화적, 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정책적 당위성은 국내 법령과 국제 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19조에 그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가서지의 작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국가서지는 국내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이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수행하는 유일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법규는 국제 규범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74년 IFLA에서는 각국에서 발행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UBC의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2012년에 제2차 UBC 체계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각국의 국가서지기관이 자국 출판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서지를 생산하여 다른 국가서지기관이나 도서관, 그 외 커뮤니티(기록관, 박물관 등)와 폭넓게 공유하고 특히 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모든 국가도서관들은 국가서지의 생산을 주도하고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명과 책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국가서지의 지속성은 국가 지식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책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국가도서관이나 국가서지기관(혹은 별도의 지정 기탁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납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총괄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도서관법 제20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납본율이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납본을 통한 국가 자원의 ‘망라적’ 수집은 법적 제약이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자료의 존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료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판사, 유통사, 서점, 도서관, 기타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지정보를 중복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상호 연동이 불가능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총괄 관리할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당연히 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소장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매년 발행·제작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국가서지를 통해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이용적 당위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국가서지의 필요성이다. IFLA(2019)에서는 국가서지의 이용자를 도서관, 도서유통업자, 출판사, 저작권 관리기관, 정부기관, 일반이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이용자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특정 년도에 발행된 자료 통계'나 '특정 시대, 주제, 사건, 인물, 자료유형에 관한 자료'를 탐색하거나 이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back data가 전무하다. 특히,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에 대한 기록이나 정확한 통계를 찾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분산되어 있거나, 그마저도 관련된 정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는 <표 2>에 기재된 기관에서 그나마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관리 주체나 여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에 대한 완전하고 통합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할은 마땅히 국가서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 최근 3년간 자료유형별 생산 통계 및 통계관리기관

자료유형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통계관리기관	
인쇄 자료	도서	75,727종	80,130종	81,890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속 간행물	대중잡지·신문	18,666종	19,607종	20,735종	문화체육관광부
		학술지	2,378종	2,479종	2,516종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학위 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95,342건	97,921건	97,532건	한국교육개발원
		내국인의 외국박사학위논문	736건	629건	534건	한국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국가정책연구보고서	3,530건	3,480건	3,637건	국가기록원 온나라 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보고서	3,329건	2,505건	2,190건	
		KRF 기초학문자료센터 등재보고서	3,362건	3,167건	3,411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기타 공공·민간기관 보고서	-	-	-	-
	회의 자료	공공 및 민간기관 회의자료집	-	-	-	-
		학술단체 학술대회·세미나 자료집	7,190건	6,969건	6,429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비도서 자료	시청각자료(DVD, VHS, Blu-ray, HDCAM, Digi-Betacam 등)	2,436종	2,436종	2,521종	한국영화DB
지도		786매	2,296매	836매	국토지리정보원	
전자출판물*		304,838종	247,040종	430,588종	한국전자출판협회	

* 전자출판물은 전자책, 전자사전, 오디오북, DB, 전자저널, 전자신문, 학술지 논문 등을 의미한다. 전자출판물의 생산 규모는 기준이 상이하고 통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생산 현황을 기증하기 어렵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는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대략적인 전자출판물의 생산 현황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는 전자출판물 생산기관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증받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생산량을 기증할 수 있는 소스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이 수치를 제시하였다.

4.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현황 분석

약 7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서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상황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활용하여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서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IFLA 서지분과위원회에서 2010-2019년에 조사한 각국의 국가서지 현황 분석 결과와 이미화, 이지원(202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1) 수록자료의 범위, (2) 데이터의 구축 방식, (3) 국가서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앞서의 두 연구에서는 국가서지 온라인 서비스와 국가서지 데이터의 발행형식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나,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데이터의 발행형식이나 파일포맷을 특별히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서비스'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현황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4.1 수록범위

4.1.1 현황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는 (1) 수록된 자료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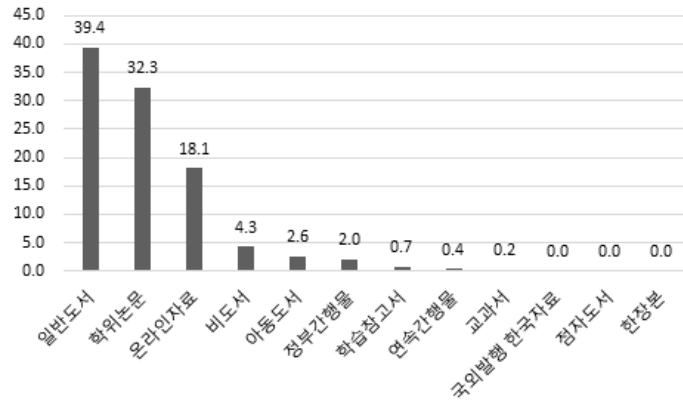
형과 (2) 납본과의 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가서지는 주지하다시피 국가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포괄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서지에 수록되는 자료의 유형은 일반도서,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학위논문, 한장본(고서), 점자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2016년에 온라인자원을 국가서지에 수록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5』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온라인자료(전자책 등)와 OASIS 아카이빙 자료(웹 문서)를 국가서지에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9』부터 온라인자료를 별도의 자원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자책은 일반도서에, 전자저널은 연속간행물과 같이 해당 자원에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서지 데이터 중 최근 3년(2017-2019년)의 자료를 이러한 자원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그림 1>과 같이 일반도서(39.4%)와 학위논문(32.3%)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포함되기 시작한 온라인자료가 18.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비도서(4.3%), 아동도서(2.6%), 정부간행물(2.0%), 학습참고서(0.7%), 연속간행물(0.4%) 순으로 나타나며, 국외

<표 3> 세부 조사 내용

	IFLA 서지분과위원회	이미화, 이지원(2021)	본 연구
분석준거	개요 및 수록자료의 범위	수록자료 범위	수록범위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데이터 구축 방식
	서비스 및 이용현황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서비스
	국가서지 생성 표준	발행형식 및 파일포맷	



〈그림 1〉 2017-2019 국가서지 데이터의 자원유형별 비중
(2021년 5월 21일 검색일 기준)

발행 한국자료와 전자도서, 한장본은 해당 기간의 국가서지에 아예 수록되지 않았거나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가서지는 전통적으로 납본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의 국가서지는 주로 납본에 의해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국에서 생산하는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를 납본과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①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된 자료, ② 수집방법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 ③ 국가도서관의 소장 자료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납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여전히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를 납본자료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하되 자국민, 자국어와 관련된 자료(예: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저자가 발표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되었거나 해당 국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당 국가의 저작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저작물 등)

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수록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서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미국은 국가도서관에서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도서관의 소장목록을 국가서지로 간주하고 있다(이미화, 이지원, 2021).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서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40여 년간은 ‘납본자료’를 대상으로 하다가 2005년에 정책기조를 바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해외에서 발행된 한국 관련 자료 포함)를 국가서지의 수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에는 우리나라 납본제도가 가진 한계, 즉 망라적 수집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가능한 포괄함으로써 국가서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국가서지 2013~2019』에 수록된 자료 중 납본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4〉와 같다.

4.1.2 문제점

전통적으로 국가서지에 수록되어 온 핵심 자

〈표 4〉 국가서지에서 납본자료의 비율

	총 수록자료	납본자료	납본 이외 자료	납본자료의 비율
대한민국국가서지 2013	110,156건	90,932건	19,224건	82.5%
대한민국국가서지 2014	175,286건	130,773건	44,513건	74.6%
대한민국국가서지 2015	245,639건	187,853건	57,786건	76.5%
대한민국국가서지 2016*	776,807건	309,889건	466,918건	39.9%
대한민국국가서지 2017	431,034건	241,597건	189,437건	56.1%
대한민국국가서지 2018	247,410건	227,288건	20,122건	91.9%
대한민국국가서지 2019	259,523건	230,898건	28,625건	89.0%
평균				72.9%

* 『대한민국국가서지 2016』에는 당해연도까지 누적된 온라인자료 90만 건이 소급 적용되어 있음. 이 표에서는 온라인자료의 소급분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원유형은 인쇄 형태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이다. 여기에, 국가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취급해 온 녹음자료, 비디오녹화자료, 악보, 지도 등이 많은 국가의 국가서지에 수록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온라인자료의 수록 비율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온라인자료의 범주는 현재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하거나 이에 속하는 유형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는 국제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비도서자료도 녹음자료, 비디오녹화자료, 마이크로자료, 악보, 팜플렛, 지도 등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고, 다른 국가의 국가서지에서 좀처럼 발견되어 있지 않는 학위논문이나 정부간행물, 점자도서, 고문헌, 국외발행자료, 교과서 등도 포괄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자료도 국가서지에 수록하고 있다.

문제는 자원유형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는데 비해 실제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원은 일부 유형(단행본과 학위논문)에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가령, 발간물의 생산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일반도서

(단행본)’를 대상으로 하여 ① 국내에서 실제 발행된 자료와 ② 납본 자료, 그리고 ③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이 국가서지가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7-2019년에 발행된 단행본은 연간 8만 종 가량으로 추정되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이 수치의 75% 내외, 그리고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는 82~83% 수준에 불과하다. 납본에 비해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어서,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를 ‘납본’에 제한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로 확대하였던 지난 2005년의 결정은 타당한 것이었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록내용만 놓고 보면 국가서지가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에 대한 권위 있고 완전한 형태의 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자원을 국가서지에 수록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범주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일반도서의 발행과 납본, 국가서지 수록 현황

기준년도	발행도서*	납본**		국가서지 수록***	
		종 수	비율	종 수	비율
2017	80,130종	59,724종	74.5%	65,803종	82.1%
2018	81,890종	63,476종	77.5%	68,717종	83.9%
2019	81,715종	58,635종	71.8%	-	-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 연간 도서발행 종수는 조사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대표 서점과 출판유통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중 국내 발행도서 기준으로 중복 제외하고 산출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통계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음.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자료의 리스트를 주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주보』를 기준으로 일반도서에 대한 연간 통계를 산출하면 2017년은 59,207책, 2018년은 58,223책으로 나타나,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공하는 납본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통계를 활용함.
 *** 해당년도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 중 일반도서,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서를 합산한 수치임. 『국가서지 2019』는 전자책을 일반도서(단행본)에 함께 수록하고 있어 2017-2018년도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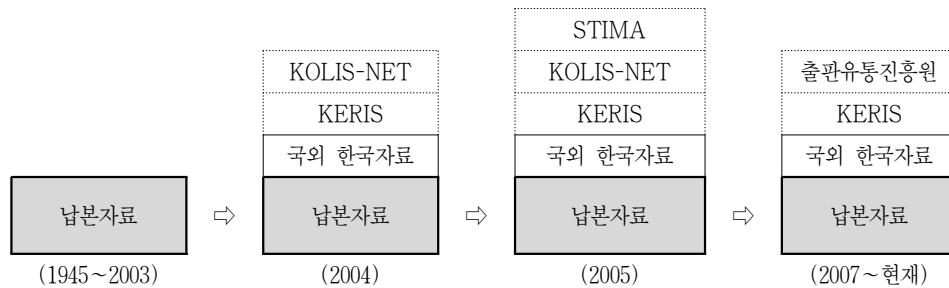
4.2 데이터 구축 방식

4.2.1 현황

2005년부터 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를 추가하여 구축되고 있다. 국가서지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납본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이며, 여기에 없는 자료는 외부기관의 데이터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부 데이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4』부터는 KERIS 대학도서관 종합목록과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의 공공도서관 소장목록을,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부터는 여기에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종합목록을 추가하여 활용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5; 2006). 그러나 데이터의 품질 및 통합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7』부터는 KOLIS-NET과 STIMA 종합목록을 배제하고 대신에 출판유통진흥원의 도서목록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현재는 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료 목록, ②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국외발행 한국 관련 자료 목록, ③ KERIS 종합목록, ④ 출판유통진흥원의 도서목록을 국가서지의 소스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레코드 중 납본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이관하고, 여기에 KERIS 종합목록 및 출판유통진흥원의 데이터를 통합한 다음 데이터 유형별로 파악하고 자동 알고리즘 및 휴먼 검증을 통해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형식 변환(KORMARC 또는 MODS)을 제외하고 내용 수정이나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소스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서지와 관련된 실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 실무진 1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추출 및 통합, 중복 체크, 데이터 변환 등 실제적인 작업은 외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국가서지의 수록범위와 소스데이터

3.2.2 문제점

우리나라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방식은 국가도서관 전담 모델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7』부터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9』에 수록된 데이터를 출처별로 구분하면, 〈표 6〉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가 81.1%, KERIS와 출판유통진흥원의 데이터가 각각 14.7%,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서지에 수록된 데이터의 약 19%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러한 데이터 구축 방식은 수록자료의 범위 측면에서 국가서지가 국가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의 목록보다 우위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서지가 추구하는 ‘포괄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분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가서지에 수록된 데이터 중 협력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데이터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실제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협력기관으로부터 ‘보장’된 것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7〉과 같이 두 기관에서 구축된 샘플 데이터(2~3%)를 무작위 추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과 직접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가서지에 수록된 협력기관의 데이터 중 상당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존재하는 데이터로 판명되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협력기관으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할 데이터는 각각 3.4%와 1.3%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다른 이유(데이터 이관 시기 혹은 내본 이외의 자료)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가 아닌 협력기관의 데이터가 수록된 것이다. 이러한

〈표 6〉 국가서지 데이터의 출처 분석

기준년도	오프라인 자료				온라인 자료	합계
	국립중앙도서관	KERIS	출판유통진흥원	소계		
2017	179,346건	55,304건	6,947건	241,597건	189,437건	431,034건
2018	189,210건	26,285건	11,793건	227,288건	20,122건	234,650건
2019	159,029건	13,860건	8,471건	181,360건	-	181,360건
3년평균비율	81.1%	14.7%	4.2%	100%	-	-

〈표 7〉 협력기관 데이터의 국립중앙도서관 존재여부 확인

내용		기준년도	2017	2018	2019*	계
국가서지 전체 건수[A]			241,597	227,288	181,360	650,245
KERIS	국가서지 수록 건수[B](B/A)		55,304(23%)	26,285(12%)	13,860(8%)	95,449(14.7%)
	샘플건수[C](C/B)		1,106(2%)	789(3%)	416(3%)	-
	NL 비존재 건수[D](D/C)		145(13%)	192(24%)	248(60%)	-
	실제 NL비존재 예상건수 [E=D*B/C](E/A)		7,250(3%)	6,400(2.8%)	8,267(4.6%)	21,917(3.4%)
출판유통 진흥원	국가서지 수록 건수[F](F/A)		6,947(3%)	11,793(5%)	8,471(5%)	27,211(4.2%)
	샘플건수[G](G/F)		139(2%)	354(3%)	254(3%)	
	NL 비존재 건수[H](H/G)		40(29%)	136(38%)	67(26%)	
	실제 NL 비존재 예상건수 [I=H*F/G](I/A)		2,000(0.8%)	4,533(2.0%)	2,233(1.2%)	8,766(1.3%)

※ NL: 국립중앙도서관

* 2019년 통계는 전자책 수록분 181,360건만을 토대로 산출함.

결과는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방식을 변경할 경우 협력기관의 기여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KERIS로부터 보강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학위논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 기관의 데이터를 전체 통합한 후 중복 제거하는 현행 데이터 구축 방식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의 데이터 구축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자료, KERIS 및 출판유통진흥원의 등록자료 이외의 자료 수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라 하더라도 납본 이외의 방식(구입, 기증 등)으로 수집된 자료는 KERIS나 출판유통진흥원의 데이터로부터 보완되지 않는 이상 국가서지에 수록될 수 없는 구조여서 국가서지의 포괄성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연간 1회 정해진 기간(매년 5월경)에 데이터를 기관받아 구축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관 시기에 미구축 또는 누락된 데이터는 국가서지에 수록되지 않으며, 누락된 데이터를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서지에서 영원히 배제되고 있다. 셋째, 각 기관에서 이관받은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데이터 구축 작업의 대부분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데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넷째, 데이터의 질 관리(enrichment)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년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거나 자료 누락, 데이터의 내용적 오류 등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다섯째,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고립(silo) 데이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종합목록은 물론이고 국가전자서비스, 국가서지 LOD, 도서관 정보나루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활용도 및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할 때 현재와 같은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방식은 전면적으로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서지에 대한 최근의 국제권고에서도 국가도서관과 외부기관 간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의 데이터 구축방식은 실질적인 협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력을 통해 얻는 이득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3 국가서지 서비스

4.3.1 현황

현재 국가서지는 전자책과 함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전자책 형태의 국가서지는 이용자가 e-pub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년도별로 국가서지 전체 또는 자원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구조이고, 데이터의 수록방식 또한 세분된 자원유형 아래 표제의 가나다순으로 나열되어 있어 전자책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6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과 범주 검색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최소한 4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검색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서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물론이고 국가서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이용자가 우연히 접근하여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색에서도 차별화되거나 특화된 기능 없이 기본적인 검색기능(검색항목, 디스플레이 방식, 검

색결과 저장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지정보 또한 소스 데이터(즉,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KERIS 종합목록 등)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축약된 형태에 데이터 제공 기관명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국가서지에 대한 국제적 권고나 최근 주요국의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강조되는 점은 국가서지의 특성을 고려한 대용량 데이터의 활용과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벌크(bulk)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나 데이터의 재사용을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형식(특정 인용포맷이나 파일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편집하여 추출하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누적된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 추세 분석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가서지 서비스에서는 자료(또는 레코드) 건별로 MARC/MODS 형식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시스템 내에 검색결과를 저장하는 기능 정도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전자책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9』에서 처음으로 수록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자료유형별 통계, 발행지역별 통계, KDC 주제별 통계 등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태이다.

4.3.2 문제점

국가서지는 소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혹은 해당 국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편성하여 제공하는 목록이라는 점에서 소장목록(holdings catalog)이나 종합목록과 개념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국가서지는 국가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포괄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국가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국가 문헌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는 국가서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종합목록 역시 국가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포괄할 수는 있으나, 국가서지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이처럼 국가서지, 국가도서관 소장목록, 국가 차원의 종합목록은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수록범위와 내용,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각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소장목록과 종합목록, 국가서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각각에 대한 접근점을 따로 제공하고 있고, 하나의 서비스에 다른 서비스로 이동 가능하도록 상호연계점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검색 서비스에서는 국가서지에 대한 접근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소장목록과 다양한 유형의 종합목록(국가자료종합목록, 한국고전적종합목록, 근대문학종합목록 등)이 제공되고 있을 뿐 국가서지는 도서관 데이터(서지, 전거 등)의 구축 업무를 지원하는 '사서 지원 서비스'에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서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서지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그로 인한 서비스의 부재가 이면에 질게 깔려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서지는 사서의 편목업무를 지원하는 보조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서지에 대한 검색 서비스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

발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서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본으로 하여, 이용자 탐색도구로 국가서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 전략 제안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수록자료의 범위와 서지데이터의 품질, 나아가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분석에 근거하여 지금부터는 국가서지의 구축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략 개발은 일차적으로 국내 관련 서비스와의 비교 및 주요국의 국가서지 서비스를 참고하여 도출하고, 이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5.1 국가서지의 수록범위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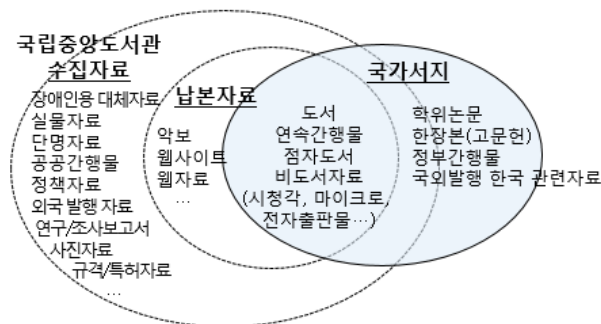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현황 및 각국의 국가서지를 참고할 때,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는 '언어나 매체, 자원유형, 주제에 상관없이 해당년도에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로 하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원을 국가서지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서지에 수록될 자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내부적 관점과 ② 외부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내부적 관점은 국가서지의 구축에 있어 절대적인 구심점 역

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중 국가서지에 수록할 범위를 새롭게 도출하기 위함이며, 외부적 관점은 각국의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원의 유형을 참고하여 국가서지의 수록될 범위를 최종 선정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자료를 ① 자료 입수 방식에 상관없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체 기준(장서개발지침)에 따라 수집하는 모든 자료와 ② 도서관법에 따라 수집하는 납본 자료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를 국가서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현행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대상 자료와 납본 대상 자료의 기준이 훨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각각의 기준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령 납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에 수록되지 않는 자원(악보, 웹사이트, 웹자료 등)이나 납본자료가 아닌데 국가서지에 수록되는 자원(학위논문, 고문헌, 정부간행물 등) 등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임에도 국가서지에 누락된 자원과 국가서지에만 선택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3〉 참조).

다음으로, 사례로 분석한 주요국의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원유형이나 특성을 우리나라 국가서지와 비교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의 사례는 매체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반대로 아주 세부적인 경우가 있어 일괄적, 단편적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서지에 포함하는 자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서지에 근거하여 유형화해 보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서지에서 수록하는 자원은 여전히 인쇄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다수의 국가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취급하여 온 비도서자료, 즉 녹음자료, 비디오녹화자료, 악보, 지도 등이 대체로 국가서지에 수록하는 자원에 해당하였으며, 웹사이트, 인터넷출판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원을 국가서지에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서지에서 중요하게 간주해 온 학위논문이나 정부간행물, 고문헌 등을 국가서지에 수록하는 국가도서관은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 국가서지/납본/수집 대상 자원의 유형 비교

이러한 내·외부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 검토 등을 토대로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최적화 모형은 자료의 이용적·보존적 가치와 자료의 발행 현황, 적용의 현실성 등을 물론이고, 이은주, 노지현(2021)에서 분석되

었던 국가서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자원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국가서지에 수록해야 할 목표를 '망라적 수록'(상), '적극적 수록'(중), '가치 판단에 의한 선별적 수록'(하)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표 8>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 수정안

현재	수정(안)	세부 내용	제외 자료	수록목표		
				상	중	하
일반도서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일반도서	• 단행본 • 단행 성격의 참고도서, 교과서·학습서, 어린이·청소년도서 포함	• 국내에서 발행·제작되지 않은 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료 • 주문형 인쇄도서	◎		
학위논문	학위논문	•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		
한장본 (고문헌)	고문헌	• 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을 영인 또는 복제한 인쇄자료			○	
점자도서	장애인용 자료	• 장애인을 위해 간행된 점자자료, 큰 활자자료, 녹음자료, 테이저자료 등		◎		
비도서 자료	시청각 자료	• 물리적 매체가 존재하는 시각자료(사진, 포스터, 슬라이드, 필름스trip 등), 청각자료(음반, 녹음테이프 등), 시청각자료(영화필름, 비디오 녹화자료 등)	• 원본에 대한 복제품이나 해적판	◎		
	마이크로자료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치 등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자료				○
	지도	• 지도책, 낱장지도, 차트, 자구의, 천체도 등			○	
	악보	• 인쇄나 필사된 악보				○
	컴퓨터 파일	• 전자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나 프로그램 파일(직접 접근 전자자료)	• 컴퓨터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음악용CD, 비디오디스크 등		○	
-	온라인 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기타 전자자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 송신되는 원격 접근 전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음원, 동영상 등)	◎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 학술지, 대중잡지, 연감류	• 신문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료	◎		
정부 간행물	공공간행물 및 정책자료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정책자료, 백서, 연감,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	• 가제식 자료, 문서류, 각종 안내서나 홍보물, 선거자료, 팸플릿, 포스터 등	◎		
-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각종보고서	• 대학이나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자료집, 회의자료, 각종 보고서				○
국의 한국자료*	(보류)					

* 국외 발행 한국 관련 자료는 국가 간의 형식적인 자료교환이나 기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각국의 국가서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공유되는 체계가 확립되면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가서지가 아닌 해당 국가의 국가서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이러한 이유로 국외 발행 한국 관련 자료를 국가서지에 수록하는 것을 보류함(차후 상황에 따라 결정 가능).

5.2 국가서지 데이터 구축 방식

현행 국가서지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구축 방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국의 국가서지 구축 모델(이미화, 이지원, 2021, 42)과 시스템 설계·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담'하는 모델과 ②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 등 두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모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원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국가서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즉, 현재와 같이 납본자료에 대한 데이터만 특정 시기에 일괄 이관하여 재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록레코드를 생성할 때 국가서지의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서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자동 반출하고, 반출된 레코드에 국가서지 제어번호를 추가하여 국가서지 DB에 자동 저장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용효과적인 모델로, 국가서지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국가서지 번호를 이용하여 국가서지 데이터와 국가도서관에서 구축한 서지, 전거, 목차, 표지, 원문DB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국가서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델은 국가 자료의 포괄적 수집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막중한 책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대상 자료 중 누락되는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포괄적 수집이 어려운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협력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지를 일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협력 모델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국가서지를 분담 구축하는 모델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생산되는 자료의 서지정보는 출판사, 출판유통단체, 도서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거나 관리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구축 목적이나 이용대상자는 상이할 수 있으나 동일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중복적으로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aaS 기반의 국가서지 구축 모델을 통해 구축 주체를 분산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령, 출판계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도로 2021년 9월부터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을 통해 출판물 정보와 판매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신간자료(주로 단행본)에 대한 다양한 서지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하여 출판사, 유통사, 서점, 도서관 등과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을 생산하는 대학과 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KERIS dCollection 데이터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현행 국가서지 데이터를 비교하면, 다음 <표 9>와 같이 단행본은 국가서지에 수록된 데이터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데이터의 82-83% 수준, 학위논문은 KERIS 데이터의 63%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서지에 수록될 자료를 유형별로 구축 주체를 분산하여 국가서지 데이

〈표 9〉 단행본 및 학위논문에 대한 기관별 통계

구분		2016	2017	2018
단행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80,130	81,890
	국가서지	-	65,803	68,717
	국가서지 수록 비율	-	82.1%	83.9%
학위 논문	KERIS	95,342	97,921	97,532
	국가서지	93,635	65,984	61,346
	국가서지 수록 비율	98.2%	67.4%	62.9%

터를 구축하게 되면, 현재 국가서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본기능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구매 지원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이고, 출판계를 비롯한 협력기관에서는 자료의 판매나 홍보 수단으로 국가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 모델에서 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 등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서지와 소장목록 간의 직접적 연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구축 모델에 비해 자료의 포괄성이나 최신성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표준화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출판유통기관(출판사, 제작사, aggregator 등)에 대한 전거DB나 ISNI 구축 및 연계 등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잇점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판계나 데이터제공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가서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서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3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국가서지는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과 기능상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수록 데이터의 내용이나 활용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서지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IFLA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가도서관의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과 국가서지를 분리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서지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검색 기능을 제외하고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우수 사례(이미화, 이지원, 2021)를 참조하고, 국가서지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은주, 노지현, 2021)을 반영하여 국가서지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국가서지의 핵심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국가서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부가 서비스는 이러한 핵심 서비스 외에 이용자의 만족을 배가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

〈표 10〉 국가서지 핵심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구분	서비스 유형	설명
핵심 서비스	(1) 국가서지 검색서비스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 저장, 반출할 수 있는 서비스
	(2) 국가서지 데이터셋	• 국가서지에서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주제, 인물, 사건, 자료유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서지를 추출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3) 국가서지 분석 서비스	• 매해 구축된 국가서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료생산 및 활용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차트, 이미지 등으로 제공
부가 서비스	(1) 국가서지 구독 서비스	•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매주, 매월 등 새로 구축·갱신된 국가서지 데이터를 무료로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독일 사례 참조)
	(2) 국가서지 연계 서비스	•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 지원
	(3) 국가서지 소셜 서비스	• 국가서지 데이터를 개인·기관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 국가서지의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는 다음 〈표 10〉과 같다.

이 가운데, 핵심 서비스에 포함된 대용량 국가서지 데이터셋과 국가서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국가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의 하위셋으로 Linked Open BNB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출판물 등에 대한 대규모(bulk)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연구자나 프로젝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서지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는 “Researcher Format Datase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BN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으로는 역사 관련 데이터셋(예: ‘Great Fire of London’, ‘Black History Month’ 등), 문학 관련 데이터셋(예: ‘Alice in Wonderland’, ‘Charles Dickens’, ‘Comic books’ 등), 음악 관련 데이터셋(예: ‘British Library printed music’, ‘Punk’ 등)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국가서지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 후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CSV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국가서지 서비스에서도 우리 이용자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주제나 사람에 관한 서지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셋은 일회성으로 또는 특정 기간에 일괄 개발하기보다는, 영국 BNB 사례와 같이 필요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셋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이를 축적하여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서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검색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거나 전자책의 서문에 매우 간단한 수준의 요약 정보를 수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서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서지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국가서지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령, 스웨덴 국가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년 30페이지 내외의 연간보고서(『Nationalbibliografin i siffror』)를 발행하고, 이를 국가서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전년도에 발간된 출판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국가서지”를 제공하는가 하면, 다양한 통계(예: 출판 언어별 발간자료 통계, 장르별(논픽션, 라이프 스토리) 발간자료 통계, 논픽션 및 픽션의 주요 키워드, 주제별 자료 분포도 등)를 비롯하여 매년 국가서지를 이용한 기획기사(예: “기후 이야기: 지난 10년간 발간된 자료로 보는 기후 변화”)를 발굴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프랑스에서도 발견된다.

이를 참조하여, 전년도에 국내에서 생산·발행된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핵심 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준년도에 대한 단순 통계 뿐 아니라 직전년도와의 비교, 10년치 추이, 전체 누적, 사회적 관심이나 트렌드와 관련된 특별한 출판동향 분석 등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서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6.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고품질의 국가서지를 구축하고 보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국가서지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서지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에 주력하여 왔고, 이로 인해 국가서지의 이용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

찬가지인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서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서비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정책적 변화와 실무적 혼란 속에서 앞으로 국가서지가 추구해야 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면서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의 서지정보로서 대표성을 갖춘 국가서지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국가서지에 수록되어야 할 자료의 유형과 구축방식,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 등에서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되는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서지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총체적 기록이자 기억으로써 자국의 지식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서지 자원이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서지가 포괄성, 체계성, 누적성, 역사성에 입각하여 ‘대표성’과 ‘권위’를 지녀야 하며, 다양한 목적에서 서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서지를 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정 기관에서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이용과 재활용,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약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 ‘데이터 인프라’가 바로 국가서지이기 때문이다.

단위 도서관의 소장목록이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 것이라면, 국가서지는 자료

의 직접적인 이용 보다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과 그에 따른 잠재적 활용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의 책임성을 환기하고, 현행 국가서지 구축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혁신 내지는 개선을 촉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2005).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4. [CD-ROM].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 국립중앙도서관 (2006).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5. [DVD-ROM].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3] 이미화, 이지원 (2021). 주요국 국가서지 현황분석을 통한 국가서지의 최신 경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35-57.
- [4] 이은주, 노지현 (2021). 국가서지의 수요자 요구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1), 179-202.
- [5] 이혜원, 박지영, 이성숙 (2017).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국가서지기관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133-154.
- [6] Beaudiquez, M. (1992). National bibliography as witness of national memory. IFLA Journal, 18(2), 119-123.
- [7] Bell, B. L. (1998). An Annotated Guide to Current National Bibliographies (2nd completely rev. ed.). 재인용: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Best Practice for National Bibliographic Agencies in a Digital Age. Available: <https://www.ifla.org/node/7858>
- [8] British Library. Retrieved from <https://www.bl.uk>
- [9] Clausen, H. (1997). The business of national bibliography: an exampl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Business Information Review, 14(1), 27-35.
- [10] Conover, Helen Field (1955). Current National Bibliographies.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1] Deliot, C. (2014). Publishing 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as linked open data. Catalogue & Index, 174, 13-18.
- [12] East, J. W. (1999). Requiem for the national bibliography? the implications of internet access to national library catalogues.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30(1), 1-10.
- [13] Häusner, E. M. & Sommerland, Y. (2018). Assessment of metadata quality of the Swedish National Bibliography through mapping user awarenes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6(1), 96-109.

- [14]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09). National Bibliographies in the Digital Age: Guidance and New Directions. München: K.G. Saur.
- [15]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Best Practice for National Bibliographic Agencies in a Digital Age. Available: <https://www.ifla.org/node/7858>
- [16] IFLA (1998). International Congress on National Bibliographies (ICNBS) Recommendations.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international-congress-on-national-bibliographies-icnbs-recommendations?og=53>
- [17] Krynicka, M. (2012). Open access to national bibliography: Polish approach. Collection Building, 31(3), 120-125.
- [18] Kungl Biblioteket (2021). Nationalbibliografin i siffror. Available: <https://www.kb.se/om-oss/det-har-gor-vi/nationalbibliografin.html>
- [19] Linder, L. H. (1959). The Rise of Current Complete National Bibliography. 재인용: Greer, R. C. (1967). National Bibliography. Library Trends, 15(3), 350-37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6).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Lee, M. H. & Lee, J. W. (2021). Current trends for national bibliography through analyzing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national bibliograph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1), 35-57.
- [4] Lee, E. J. & Rho, J. H. (2021). An analysis of the users' needs on the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179-202.
- [5] Lee, H. W, Park, Z. Y., & Lee, S. S. (2017). A study on the extended roles of national bibliographic agencies in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8(1), 133-154.

